

부부의 생활 만족도 비교 분석 :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of husband and wife

—Concentrated on subject evaluation of economic level—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박美錦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Lecturer : Mi Kum Park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논의
II. 문헌 연구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husband's and wife's satisfaction of home life. This study is also to compare and analyze some empirical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of husband and wife according to home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subjective evaluation of economic level including their perception levels of home economics circumstance.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husband's score of life satisfaction shows significantly more than wife's score, that is, his score is 3.36 and her score is 3.19.

2. The variables which affect couple's life satisfaction are the perception of resource adequacy, the perception of the adequacy of household income, the evaluation level of resource contribution and the perception of level of living relative to other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f the husband is the perception of resource adequacy, whil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f the wife is the evaluation level of resource contribution.

3. The result of the relative contribution for the variables of life satisfaction are as follows. The explanation of husband's sociodemographic variable is 11.5%. If variable of subjective evaluation of economic level is added, the explain power is

34.1% (increase 22.6% ($p < 0.001$)). The explanation of wife's socio-demographic variable is 9.8%. If variable of subjective evaluation of economic level is added, the explanation is 41.2% (increase 31.4% ($p < 0.001$)).

I. 서 론

관리란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포함하는 하나의 과정 (Schlater, 1967: 94)으로, 가정생활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정관리는 가족구성원의 최대한의 욕구충족을 통하여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가정관리는 가족구성원의 가치나 욕구 등이 가정의 인적, 물적 자원의 사용에 의하여 실현되고 충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관리의 결과는 가정의 복지증진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산업의 근대화과정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자 경제학자들은 후생복지의 지표로써 물질적인 재화와 용역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면서 사회학자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하여 보다 더 광범위한 접근 방법으로 복지와 만족을 측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로서 Campbell 등(1976: 375~376)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인 만족이나 복지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보다도 자원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에 더 의존하며, 또한 소득, 직업 등 개인의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가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Strumpel, 1973: 114~115). 즉 객관적인 경제환경보다 이러한 객관적인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더 개인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가계는 자원을 획득, 배분, 소비하는 경제주체이며 소비자 단위이다. 즉 가계는 요소시장에 가정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획득한 소득으로 재화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가족의 욕구충족 및 가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소비를 하고 있다. 여기서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은 요소시장에서 소득을 획득하는 생

산수단으로서 그리고 재화시장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역 등 소비수단으로서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평가정도 즉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평가정도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인간은 매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족원으로서 동일한 가정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간에도 자기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 정도가 다르다면 가족원이 느끼는 만족감 또한 다를 수가 있으므로 부부간에도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 느끼는 만족감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가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면 영향요인들이 각각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주부들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부부간의 차이를 검증하거나,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정도에 따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고,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정도인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들이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의 가치를 재 발견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용의 극대화를 이루고, 이에 따라 가족의 목표달성에 기여하여 가족 전체의 만족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생활만족도의 개념 및 부부의 생활만족도

1) 생활만족도의 개념

만족에 대한 개념은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에 따라 주관적이며 그 정의 역시 다양하다. Burr(1970; 29)는 만족이란 개인이 목표나 욕망의 달성 정도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Campbell 등(1976; 8)에 의하면 만족이란 열망과 성취간의 인지된 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Strumpel(1973; 72)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목표라는 척도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만족이란 목표와 현실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경동 등(1983; 469)은 인간의 만족감이란 두 가지 가치체계요소 즉 사람들이 생존의 풍요화를 위해 추구하는 가치 형태와 사람들이 도달하고자 추구하는 가치수준의 함수라고 정의하였다. Burr 등(1979; 67)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만족의 정의를 두 가지의 견해로 구분하여 그 중 하나는 만족이란 한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정도이며, 또 다른 견해는 기쁨 대 슬픔, 만족 대 불만족, 행복 대 불행에 관한 주관적인 경험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하나 만족이란 주관적으로 경험된 반응이라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만족의 개념은 인간이 심리적 또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느낌으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인 목표나 열망과 이들 목표나 열망의 달성정도 즉 현실과의 사이에서 지각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를 덜 지각할 수록 개인이 가지는 만족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임정빈(1990b; 136~137)은 이러한 만족의 개념을 가정관리학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즉 만족이라는 개념은 가정관리에 있어 투입(input), 과정(throughput) 그리고 결과(output)요소 중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욕구충족 또는 목표달성의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관리에서의 만족은 가족이나 가정관리자가 설정해 놓

은 생활표준에 도달했을 때 가지게 되는 주관적인 만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생활만족도란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목표 및 기대의 달성정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목표달성 여부는 가족들의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부의 생활만족도

실제로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있어서 부부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므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중년기 기혼 남녀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Hayes와 Stinnett(1971; 673)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정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임정빈(1990b; 141)에 의하면 한국농촌가정의 남성과 여성의 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미국의 경우 남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숙(1989; 21)은 확대기 가정부부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바 남편이 부인보다 유의하게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과의 관계를 연구한 고보선·임정빈(1992; 203~204)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생활의 질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반적인 가정생활은 아니나 화폐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생활 영역에서 부부간의 차이를 보면 Davis(1981; 93~94)의 연구에서는 도시 주부의 재정 만족도 점수가 남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연구한 박미금(1992; 67)에 의하면 남편이 부인보다 유의하게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관적 경제수준평가와 생활만족도

1) 부부의 주관적 경제수준평가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물질을 찾는다(Fitzsimmons & Williams; 59). 따라서 가정의 경제자원에 대한 평가 정도도 생활표준이나 소비표준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경제성장이 되어서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은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화를 적게 소유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는 만족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불만족의 원인 될 수도 있다(Fitzsimmons & Williams; 293). 이러한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면 자기 가정의 소득의 적정여부인 소득 적정감이나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지각하는 상대적 비교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들 수 있으며, 가정의 경제목표달성여부에 따라 가정의 재정상태의 변화 또는 향상에 대한 평가도 이에 속할 수 있다.

한편 Rice와 Tucker(1986; 353)는 인적 자원을 경제자원으로서의 인적 자본이라고 표현하고 이 인적 자본은 한 개인의 소득과 생산성에 대한 가능성으로 다른 경제자원을 획득하는 도구이며 생활의 물질 환경과 교환될 수 있는 소득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Deacon과 Firebaugh(1988; 56)도 인적 자본은 어느 한 시점에서 미래의 자원과 그 자원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능력축적의 총체라고 하였다. 한편 Rettig(1987; 16~26)는 가계생산을 사회적 생산성과 경제적 생산성으로 구별하고, 경제적 생산성은 보다 나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의 자원으로 능력있는 인간을 가정에서 성장시키는 가계의 사회적 생산성이라고 하여 가계생산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가계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가계 외부에서의 직업적 생산과 가계 내부에서의 가계생산에서 인적자원활용의 최대화의 실현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에 대한 평가는 생활의 질을 유지하거나 방해하는 환경적 특성, 경제적 자산, 개인적 특성에 대한 효용성의 인식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직업이나 가계생산을 가정의 경제자원의

획득능력인 인적 자원으로 간주하여, 이 인적 자원에 대한 역할 담당자 자신의 지각 정도와 이에 대한 배우자의 평가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동일한 가정환경 내에서 이러한 가정의 경제자원에 대한 각 가족원의 지각 정도가 다르다면 이에 따른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감 또는 경제적인 복지감이 다를 수가 있다.

Wilhelm 등(1987; 17~12)은 경제복지의 지표로서 Moen(1980)이 제시한 객관적·절대변인, 주관적·절대변인, 주관적·상대변인으로 고안된 여러 항목들에 대한 부부간의 경제복지 지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부부간에 대부분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거주지역에 따라서 즉 지방의 경기침체지역의 부부사이에서 주관적·상대변인의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

Wilhelm과 Iams(1986)는 경제복지지표로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에 대한 부부간의 일치 정도를 연구한 결과 주관적 지표보다 객관적 지표의 일치 정도가 더 높았으며, 주관적 지표 중 가족 지향적인 소득 적정감을 일치 정도가 더 높았으며, 시간·에너지 등의 개인 지향적인 자원 지각도는 일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관적 경제수준평가에 따른 생활만족도

Easterlin(1973; 3~10)은 소득과 만족 또는 행복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과 행복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인간복지(Human Well-being)란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행복과 동일시 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부의 증가는 개인의 욕구충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행복감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사회전체의 부의 증가는 결코 사회전체의 행복감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 국가나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필요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Campbell 등(1976; 375~376)은 객관적 자원상태, 자원상태에 대한 만족 및 복지감 사이의 인과 모형을 제시하고 복지감은 객관적 자원상태와의 관계보

다 자원상태에 대한 만족과의 관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Emmons와 Diener(1985; 163~164)는 만족도 측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객관적 변인과 5가지 심리적 과정 즉 긍정적 영향감, 부정적 영향감, 사회적 비교감, 열망, 변화감이 만족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객관적 변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심리적 과정인 사회적 비교감과 긍정적 영향감은 만족도를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가정학에서도 가정관리의 결과인 산출요소로서 가정의 목표달성이나 가족 개개인 및 가족의 욕구가 충족된 정도인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평가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Hafstrom과 Dunsing(1973; 126~132)의 저소득층 주부와 일반주부의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의 가장 큰 예측치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일반주부는 소득 적정감이, 저소득층 주부는 주거 만족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서 주관적 평가변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였다.

Mammen(1980; 125~131)은 개인적인 복지감의 중요성에 비추어 생활영역 중에서 차지하는 재정적 복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주관적 평가변인인 소득 적정감의 기여도, 이 소득 적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 결과 재정영역이 생활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 하위영역으로 입증되었으며, 객관적 변인인 소득보다 주관적 변인인 소득 적정감이 개인의 전체 복지감을 더 크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및 재정상태 향상감이 소득 적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서 개인의 복지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고보선과 임정빈(1992; 205~206)에 의하면 가계 소득 적정도 인지와 가정경제문제 경험빈도를 조합한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남성과 여성모두의 가정생활의 질 만족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남성보다 여

성의 경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이론에 근거하여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연구한 최동숙(1991; 69~70)의 연구에서는 투입요소인 가정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산출요소인 주부의 가정생활 만족도 증가하였다.

이종숙(1989; 23)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경우 전체 생활만족도 중 하위영역인 경제적 만족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남편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 및 자기평가 변인이었다.

한편 전체 생활 만족도는 아니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결혼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Brinkerhoff와 White(1978; 264)는 결혼 관계내의 부부의 역할 수행과 결혼만족에 대한 남편의 소득 및 직업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남편의 소득이나 고용 상태(객관적 직업능력 변인)보다는 주관적 지각변인인 남편 직업상의 문제 지각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관적 경제변인이 결혼만족의 중요 예측치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소득 적정감, 가정자원인지 수준 또는 자원상황에 대한 만족, 인적 자원으로서 직업에 대한 지각정도 등 가정의 경제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3.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은 대체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동숙(1991; 69), 임정빈(1987a; 63~64), Newton(1979; 47)의 연구에서 연령이 적을수록 주부의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이종숙(1989; 29)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적을수록 부부 모두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변인으로서 조미환(1990; 45)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의 생활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이종숙(1989; 29), 김재경·문숙재(1992; 69)의 연구에서

는 부부 모두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ewton(1979; 45)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Hayes와 Stinnett(1971; 673), Hafstrom과 Dunsing(1973; 126), 임정빈(1987a; 64), 조미환(1990; 46), 김재경·문숙재(1992; 69), 이종숙(1989; 28) 등의 연구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직업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임정빈(1987a; 64)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일 때, 김재경·문숙재(1992; 69)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 때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임정빈(1987a; 64)의 연구에서 가족수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서울시 주부) 또 다른 연구(임정빈 b; 1990)에서 한국농촌가정의 생활만족도는 가족수가 6~7명일 때 가장 높고 4명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나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주택소유는 Lytton(1986; 186~190), Heck(1983; 132)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2)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

소득 적정감은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Hafstrom과 Dunsing(1973; 126)에 의하면 주부의 소득 적정감은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었으며, Mammen(1980; 125~128)의 연구에서도 부부 모두의 소득 적정감은 생활의 질 만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고보선·임정빈(1992; 205~206)에 의하면 가정경제안정인지의 하위변인으로 선정된 가계소득 적정도인지는 기혼 남성·여성 모두의 가정생활의 질 만족과 높은 정적 관계가 있었다.

상대적 비교감과 경제수준 향상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미흡하여 이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Emmons와 Diener(1985; 161~164)에 의하면 사회적 비교감은 전체 생활영역과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Dillard(1987; 113~115), 박미금(1992; 71) 등의 연구에서는 상대적 비교감이 높을수록 경제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s(1981; 180), Winter 등(1984; 411), 박미금(1992; 71) 등의 연구에서는 경제수준 향상감이 높을수록 가정생활 중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는 재정 및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지각도나 자원기여 평가도를 변인으로 한 선행연구도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고찰하였다.

남편의 경우 Brinkerhoff와 White(1978; 265)의 연구에서 남편 자신이 직업상에서 문제를 지각했을 때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관적 경제변인이 결혼만족에 대한 중요한 예측치라고 하였으며, 박미금(1992; 70~71)의 연구에서도 남편이 자신의 인적 자원능력 즉 자원 지각도가 높을수록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Schram과 Hafstrom(1986; 240~241)에 의하면 주부는 가정의 재정자원을 덜 적정하게 느낄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고 그 결과 시장구매를 덜하여 돈을 저축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주부 자신이 자신의 가계생산을 가정의 경제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원기여 평가도와 관련된 연구로 생활만족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박미금(1992; 70~71)의 연구에서는 부부 모두 자원기여 평가도가 높을수록, 즉 배우자의 인적 자원으로서의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상의 문헌고찰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부부의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2) 부부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3) 부부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2. 용어의 정의

1) 생활만족도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목표 및 기대 달성 정도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2)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① 소득 걱정감 : 현재소득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에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② 경제수준 향상감 : 현재 가정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와 소득을 5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③ 상대적 비교감 :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을 이웃이나 친구 또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였을 때 느끼는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④ 자원 지각도 : 자신이 행하는 직업 또는 가계 생산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 정도로서 남편의 자원 지각도는 직업에 대한 남편 자신의 지각 정도이며, 부인의 자원 지각도는 가계생산에 대한 부인 자신의 지각 정도이다.

⑤ 자원기여 평가도 : 배우자의 직업이나 가계생산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남편의 자원기여 평가도는 주부의 가계생산에 대한 남편의 평가 정도이며, 부인의 자원기여 평가도는 남편의 직업에 대한 부인의 평가 정도이다.

3. 측정도구

1) 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 도시 가정의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선행연구(임정빈; 1987, 이종숙; 1989, 최동숙; 1991)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예비 조사를 거쳐서 수정·보완하였다. 일반적 만족, 가사수행, 자녀관계, 부부관계, 경제생활, 여가 및 지역사회참여, 자아개념 등 7개 영역의 각 2문항씩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응답방식은 5점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소득 걱정감, 경제수준 향상감, 상대적 비교감은 선행연구(Dillard; 1987, Davis; 1981, Wilhelm과 Iams; 1986)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서 수정·보완하였다. 각각 2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가계소득이 걱정하며, 가정의 경제생활수준이 지난 5년 동안 향상되어 왔으며 또한 타인이 비교하여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원 지각도, 자원기여 평가도 척도는 선행연구(김숙이; 1987, 김양희 등; 1992)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서 수정·보완하였다. 5점 Likert척도로 각 5문항씩이다. 자원 지각도는 남편의 경우 자기 직업에 대한 지각정도, 부인의 경우 자신이 행하는 가계생활활동에 대한 지각정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직업 또는 가계생산이 가정의 경제생활에 더 기여한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자원기여 평가도는 남편의 경우 부인의 가계생산의 기여 정도를 남편이 평가함을, 부인의 경우 남편의 직업의 기여 정도를 부인이 평가함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경제활동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 및 주관적 경제수준평가변인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에 의거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검증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각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변인		신뢰도 계수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소득적 정감	$\alpha = .72$	
	경제수준 향상감	$\alpha = .67$	
	상대적 비교감	$\alpha = .77$	
	남편	자원지각도(직업)	$\alpha = .80$
		자원기여평가도 (가계생산)	$\alpha = .75$
	부인	자원지각도(가계생산)	$\alpha = .72$
자원기여평가도(직업)		$\alpha = .88$	
생활만족도		$\alpha = .87$	

4.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자녀 이상을 둔 부부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서울시의 22개 구 중 강북지역은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과 강남지역(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송파구, 구로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부모 및 아파트 단지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업분포를 고려하여 강북지역(용산구, 도봉구)과 강남지역(구로구, 송파구)의 금융기관, 일반회사, 학교기관 및 자영업체에 근무하는 남성과 그 부인에게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5. 자료수집 및 처리

1992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1992년 11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415쌍을 회수하였으나 그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67쌍의 설문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2〉와 같다.

2. 연구결과 및 분석

1)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및 부부간의 차이
부부 각각의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은 3.36점, 주부는 3.19점으로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생활만족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볼 때 본 연구는 남편의 경우 67.2점, 부인의 경우 63.8점으로 최동숙(1991; 59)의 연구에서는 67.8점(주부), 이종숙(1989; 20)의 연구에서는 63.7점(남편)·63.2점(부인), 고보선·임정빈(1992; 203)의 연구에서는 62점(기혼남성)·60.59점(기혼여성)으로 환산된다. 남편과 부부를 공동으로 조사한 이종숙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남편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편이며, 부인의 경우 비슷한 편이나, 최동숙의 연구보다는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다소 낮으며 고보선·임정빈의 결과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수의 차이는 척도 구성상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다소 무리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생활만족도에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연구문제 1)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부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부부간에 있어서 남편이 부인보다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은 이종숙(1989)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부인의 생활만족도가 남편보다 낮은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부인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증가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주부들이 가정관리 수행상 가정 밖의 대외적인 역할이 증가하였다. 한편 남편의 경우 산업사회의 특성상 남성들의 경제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과거 전통사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367)

변인	범주	f (%)	변인	범주	f (%)
남편의 연령	35세 이하	56 (15.3)	남편의 직업	생산·노무직	64 (17.4)
	36~40세	51 (14.9)		판매직	25 (6.8)
	41~45세	91 (24.7)		사무직	77 (21.0)
	46~50세	103 (28.1)		자영상공직	88 (24.0)
	51~55세	47 (12.8)		전문·관리직	113 (30.8)
	56세 이상	19 (5.2)		계	367(100)
	계	367(100)			
부인의 연령	30세 이하	37 (10.1)	월평균 가계소득	80만원 미만	23 (6.3)
	31~35세	43 (11.7)		80~120만원 미만	109 (29.7)
	36~40세	91 (25.1)		120~160만원 미만	89 (24.2)
	41~45세	76 (28.8)		160~210만원 미만	88 (24.0)
	46~50세	63 (17.2)		210만원 이상	58 (15.8)
	51세 이상	26 (7.1)		계	367(100)
	계	367(100)			
남편의 학력	중졸 이하	38 (10.4)	주택 소유여부	자가	274 (74.6)
	고졸	143 (39.0)		전세 및 월세	93 (25.4)
	대졸	143 (39.0)		계	367(100)
	대학원졸	43 (11.6)			
	계	367(100)			
부인의 학력	중졸 이하	87 (23.7)	가족수	2~3명	44 (11.9)
	고졸	181 (49.3)		4명	171 (46.6)
	대졸	90 (24.5)		5명	112 (30.5)
	대학원졸	9 (2.5)		6명 이상	40 (11.0)
	계	367(100)		계	367(100)

〈표 3〉 부부간의 생활 만족도의 차이

(N=367)

5점 만점 (100점 만점)

대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차이	t값 및 유의도
남편	3.36 (67.2)	0.53 (11.6)	0.17 (3.4)	6.06***
부인	3.19 (63.8)	0.62 (12.4)		

*** p < .001

회에서의 가부장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동시에 아버

지나 남편으로서 또는 부부 공동으로서의 가정적 역할 중 자녀양육, 가계관리, 가족 및 친족 관계 유지 등에서 주부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되는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결국 주부는 과거에 비해 가정내·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관리자로서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부는 가정생활에서 주부 역할에 대한 기대나 실제 역할 수행상 과중한 역할부담을 가지게 될 수 있다. 한편 가정의 소비적 기능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화폐소득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이에 대한 남편의 직업수행 역할은 수단자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반해 가정에서 직접

일상적인 소비를 위한 지출을 담당하는 주부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가정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가정생활 전반에의 생활만족도는 남편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2)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연구문제(2)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들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산출해 본 결과(부록 1), 남편의 연령과 부인의 연령 및 결혼지속년수 사이, 가족수와 자녀수간의 상관관계가 각각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변인의 경우 남편의 자료 분석시에는 남편의 연령, 주부의 자료 분석시에는 부인의 연령을, 가족수와 자녀수 중에서는 가족수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변인들의 상호독립성이 확인되었다.

부부 각각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을 다음과 같다(표 4).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원 지각도($\beta=.24$), 소득 적정감($\beta=.20$), 자원기여 평가도($\beta=.18$), 상대적 비교감($\beta=.17$)으로 자원 지각도가 높을수록, 소득 적정감이 높을수록, 자원기여 평가도가 높을수록, 상대적 비교감이 높을수록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4개 변인의 설명력은 31.4%로 자원 지각도가 남편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제 1의 영향변인으로 검증되었다.

부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원기여 평가도($\beta=.36$), 상대적 비교감($\beta=.20$), 소득 적정감($\beta=.16$), 자원 지각도($\beta=.14$)로서 자원기여 평가도가 높을수록, 상대적 비교감이 높을수록, 소득 적정감이 높을수록, 자원 지각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4개 변인의 설명력은 40.0%로 자원기여 평가도가 부인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제 1의 영향변인으로 검증되었다.

소득 적정감이 부부 모두의 생활만족도의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Hafstrom과 Dunsing(1973: 126), Mammen(1980: 125~128), 고보선·임정빈(1990: 205~2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시장경

〈표 4〉 부부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향 변인

(N=367)

독립 변인	남 편		부 인	
	b	β	b	β
자원지각도	.51	.24***	.37	.14**
소득적정감	1.07	.20**	.86	.16**
자원기여평가도	.39	.18***	.78	.36***
상대적비교감	.90	.17**	1.24	.20***
상수	19.36		12.53	
F비	31.95***		44.35***	
R ²	.314		.400	

* $p < .05$ ** $p < .01$ *** $p < .001$

제체계 내에서 끊임없는 구매결정과 소비활동을 해야 하는 가계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교환수단이며 가치척도인 화폐소득이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자원이 된다. 그리고 이 자원의 양도 어느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나, 한편으로 이 자원이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정하다고 지각할수록 긍정적이고 여유있는 태도로서 가게관리를 행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가게관리 결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상대적 비교감 또한 부부 모두의 생활만족도의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Emmons와 Diener(1985: 161~16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전체 생활만족도는 아니나 그 하위영역이 되는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연구한 Dillard(1987: 113~115), 박미금(1992: 71) 등의 연구에서도 상대적 비교감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 적정감은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으로 주관적이며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적 비교감은 타인 혹은 준거 집단과 비교하여 자기 가정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 여기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하여 가정의 목표달성의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 가정생활이 만족스럽게 되자면 소득 적정감과 같은 스스로의 판단이나 지각 정도도 영향을 미치지만, 한편으로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 가정의 상황에 대한 자신감 혹은 우월감이

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 비교감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환언하면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면서 동시에 타인과 비교하여서도 더 자신감이 있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자원기여 평가도가 부부 모두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남편의 경우 부인의 가계생산이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며, 부인의 경우 남편의 직업이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가 모두 배우자에 대한 자원기여 평가도가 높을수록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박미금(1992: 70~71)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경제생활 만족도와 생활만족도는 개념상 차이점은 있으나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자원기여 평가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기대해 왔던 주부의 역할을 높게 인정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인의 경우 남편의 직업적인 능력을 높게 인정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수단자로서 남편의 역할이 실제 가정에서 가족원의 욕구충족의 수단이 되는 경제자원의 획득자로서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원 지각도에서도 남편의 경우 자신의 직업상 문제 지각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친 Brinkerhoff와 White(1978: 265)의 연구결과나 자원 지각도가 높을수록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박미금(1992: 70~71)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과업지향성이 강한 남성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역할이며 자신의 인적 자원의 표현이 되는 직업적인 능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가정생활에서도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인의 경우 자원 지각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부인의 자원 지각도는 자신의 경제생활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박미금(1992: 70~71)의 연구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시적인 소득이 주로 사

용되어야 하는 경제생활에서는 자신의 가계생산을 통한 비가시적인 효용창출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전체 가정생활에는 여전히 주부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생산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는 소득을 포함한 가정자원의 효용창출의 결과이며, 가정관리자로서의 능력은 화폐소득 이상으로 자원의 효용 극대화로서 가정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부의 생활만족도의 영향변인으로 동일한 변인이 검증되었으나 그 영향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편의 경우 자원 지각도($\beta=.24$)와 소득 걱정감($\beta=.20$)의 영향력이 더 크나, 부인의 경우 자원기여 평가도($\beta=.36$)와 상대적 비교감($\beta=.20$)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자원 지각도나 소득 걱정감은 남편 자신의 직업적 능력과 직접 관련되는 변인으로서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부인의 경우 자원기여 평가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는 자신의 인적 자원능력보다는 남편의 직업적 능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언하면 남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직업적 역할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주부의 입장에서 남편의 직업적 역할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각각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계생산자로서의 주부역할에 대한 남편의 자원기여 평가도가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남편의 직업적 역할에 대한 부인의 자원기여 평가도가 주부자신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정은 소비단위로서 수많은 구매결정과 소비활동을 통한 가계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직업생활에서의 고충을 더 경험하게 되는 남편에 비해 일상 소비지출을 담당하는 주부로서는 관리자 즉 소비자로서의 고충과 끊임없이 요구되는 가계관리상의 노력이 크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교환수단인 화폐소득자인 남편에 대한 자원기여 평가도가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

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남편의 경우 주부의 가계생산을 통한 효용창출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교환수단으로서의 자신의 화폐획득능력을 지각하는 정도가 남편자신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상대적 비교감이 자원기여 평가도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것은 가정의 생활표준이나 소비표준을 정할 때 가정의 상황보다 타인의 표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면 시장경제 내에서 가계와 시장과의 관계, 남편과 부인의 역할 수행 및 이 역할에 대한 기대 등에 따라 부부 각각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의 상대적 기여도

연구문제(3)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군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1단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을, 다음 2단계에서는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표 5).

먼저 남편의 경우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설명력이 11.5%($p < .001$)이었으며, 여기에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을 추가한 결과 설명력이 34.1%로 1단계에 비하여 22.6%($p < .00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부인의 경우 1단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9.8%($p < .001$)이었으며,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41.2%로 1단계에 비하여 31.4%($p < .00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비해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의 상대적 기여도가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Strumpel; 1973, Campbell 등; 1976, Emmons와 Diener; 1985, Hafstrom과 Dunsing; 1973, Mammen; 1980)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 즉 가정의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이에 대한 지각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므로 가정자원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정도가 높다면 가정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정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원 이외에도 가정의 소유는 아니나 이용이 가능한 환경자원의 발견도 중요한 가정의 자원관리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인적 자본으로서 가족원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개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자원의 관리 또한 중요한 가정관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간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고,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정도인 주관적 경제수준평가들이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비교분석하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부 각각의 생활만족도 점수가 남편은 3.36점, 부인은 3.19점이었으며,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부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과 부인이 모두 자원 지각도, 소득 걱정감, 자원기여 평가도, 상대적 비교감으로 각 변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변인들의 영향력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서 남편의 생활만족도에는 자원 지각도, 소득 걱정감, 자원기여 평가도, 상대적 비교감의 순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부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자원기여 평가도, 상대적 비교감, 소득 걱정감, 자원 지각도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생활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N=367)

독립 변인	1단계				2단계			
	남 편		부 인		남 편		부 인	
	b	β	b	β	b	β	b	β
주택소유 여부	1.71	.10	3.20	.16*	.34	.02	.84	.04
부 인 학 력	.08	.03	.52	.16*	.13	.05	.23	.07
남편 직업 D ₁	.78	.05	.17	.009	-1.23	-.09	-.59	-.03
월평균 가계소득	.01	.19**	.01	.17**	.002	.04	-.003	-.05
가 족 수	.09	.01	-.83	-.09	.35	-.04	-.67	-.07
연 령	-.14	-.15*	-.07	-.05	-.10	.10	.06	.05
남 편 학 력	.25	.09	-.02	.004	.14	.05	-.19	-.06
남편 직업 D ₂	2.22	.15	.27	.01	-.95	-.06	-.65	-.04
자원기여 평가도					.38	.18***	.76	.35***
경제수준 향상감					.47	.10	.16	.03
자 원 지 각 도					.50	.22***	.38	.15**
상대적 비교감					.63	.12	1.28	.20**
소 득 적 정 감					.88	.16*	.89	.16*
상수	44.13		39.51		18.771		12.09	
F비	4.45***		3.56***		10.75***		13.90***	
R ²	.115		.098		.341		.412	
R ² 증가량					.226***		.314***	

* p < .05 ** p < .01 *** p < .001

3.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군들의 상대적 기여도는 남편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11.5%(p<.001)이었으며, 여기에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을 추가한 결과 34.1%로 22.6%(p<.00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부인의 경우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9.8%(p<.001)이었으며,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을 추가한 결과 설명력이 34.1%(p<.001)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생활만족도가 남편에 비해 주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일한 가정환경 내에서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 내·외적으로 가정관리 수행상 주부의 역할이 증가되고, 반면에 산업사회의 특성상

남편들의 경제활동의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주부의 책임이 증가되면서 과중한 역할부담을 가지게 되어 생활만족도가 남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2. 자기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 되는 소득 적정감과 타인 혹은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되는 상대적 비교감이 생활 만족도의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면서도 동시에 타인과 비교하여서 더 자신감이 있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측면에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가정의 경제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공동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가정의 자원관리에 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

고 가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최적의 자원관리를 한다면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가족 구성원의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남편의 자원 지각도와 부인의 자원기여 평가도가 부부 각각의 생활만족도의 제 1의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남편 스스로도 자신의 직업, 부인의 입장에서도 남편의 직업적인 능력을 크게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경제의 일차적 자원인 금전소득 능력에 관심이 더 큰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아울러 가시적인 경제능력으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쉬운 화폐경제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생산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는 화폐소득 이상으로 가정에서 새로운 효용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우수한 직업적 능력을 통하여 가계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가정의 과제이므로, 직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가족원의 도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간의 상호협동적이며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가정경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부의 생활만족도는 동일한 가정환경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정도인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가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취업부부의 가정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인적자원으로서 취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가정환경에서 부부간의 생활만족도가 차이가 나타난 것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을 사회경제적 지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가정으로 확대하여 주요 영향변인으로 검증된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변인들의 영향력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고보선·임정빈,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대한가정학회지, 제10권 제2호, 1992, pp.191-208.
- 2) 김경동·이홍구·신도철, "한국인의 가치의식과 삶의 질",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이만갑교수 회갑기념 논총, 1983, pp.461-499
- 3) 김숙이, "도시 주부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7.
- 4) 김양희·박측선·서동인·신화용·조병은·최규련,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3호, 1992, pp.285-305.
- 5) 김재경·문숙재,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1992, pp.53-74.
- 6) 박미금,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7) 이종숙,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 만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 8) 임정빈, "가치성향, 의상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a.
- 9) 임정빈, "농촌 가정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제4호, 1990b, pp.135-153.
- 10) 조미환,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11) 최동숙,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1.
- 12) Brinkerhoff, David B. & White, Lynn K. "Marital satisfaction in an economically marginal popul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1978, pp.259-267.
- 13) Burr, Wesley R. & Leigh, Geoffrey K. & Day, Randall D. & Constantine, John,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in W.R. Burr & R.

- Hill & F.I. Nye & I.L. Reiss(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2, The Free Press, New York, 1979, pp.66-78.
- 14) Burr, Wesly R.,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2, No.1, 1970, pp.29-36.
 - 15) Campbell, Angus, Converse, Philip E. & Rodgers, Willard 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1976.
 - 16) Davis, Elizabeth Patricia,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determinants and correl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981.
 - 17) Deacon, Ruth E. & Firebaugh, Francille M.,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Allyn and Bacon, Inc., Boston, 1981, 1988.
 - 18) Dillard, Betty L. "Household production as a determinant of satisfaction with economic circumsta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987.
 - 19) Easterlin, Richard A., "Does money buy happiness?", *The Public Interest*, 30, 1973, pp.3-10.
 - 20) Emmons, Robert A. & Diener, ED, "Factors predicting satisfaction judgements : A comparative examin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6, 1985, pp.157-167.
 - 21) Hafstrom, Jeanne L. & Dunsing, Marilyn M., "Level of living :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2, No.2, December. 1973, pp.119-132.
 - 22) Hayes, M.P. & Stinnett, 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3, No.9, 1971, pp. 669-674.
 - 23) Heck, R.K.Z.,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 7, 1983, pp.117-135.
 - 24) Lytton, R.H., "An empirical analysis of a system mode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1986.
 - 25) Mammen, Sheila, "Perceived adequacy of income - an element of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1980.
 - 26) Moen, R.S., "Developing family indicators", *Journal of Family Issues*, 1, 1980, pp.5-30, in M.S. Wilhelm & D.R. Iams & J. Rudd, "Husband and wife agreement of indica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16, No.1, September, 1987, 재인용
 - 27) Newton, D.L., "Managerial behavior,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manageri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1979.
 - 28) Rettig, Kathryn D., "Household production: beyond the economic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1, 1987, pp.141-156.
 - 29) Rice, Ann Smith & Tucker, Suzanne M., *Family life management*, 6th. Ed.,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6.
 - 30) Schlater, J.Davis, "The management process and its core 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59, No.2, 1967, pp.93-98.
 - 31) Schram, Vicki R. & Hafstrom, Jeanne L., "Family resources related to wife's time inputs to housework",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1986, pp.235-245.
 - 32) Strumpel, Burkhard, "Economic life-styles, values and subjective welfare- an empirical approach", in Eleanor B. Sheldon(Ed.) *Family economic behavior: problems and perspects*, Philadelphia :

- Lippincott, 1973, pp.69-125.
- 33) Wilhelm, Maris S. & Iams, Donna R., "Measures of economic well-being husband and wife consensus",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32, 1986, pp.144-152.
- 34) Wilhelm, Maris S. & Iams, Donna R. & Rudd, Joel, "Husband and wife agreement of indicator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16, No.1, September, 1987, pp.13-22.
- 35) Winter, Mary, Bivens, Gordon E. & Morris, Earl W., "The assessment of subjective change in family financial well-being", *Family Strengths*, 5, 1984, pp.399-417.

(부록 1) 가정생활 만족도 변인간의 상관관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N=367)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남편 연령	1.00																							
2. 부인 연령	.90**	1.00																						
3. 남편 학력	-.08	-.03	1.00																					
4. 부인 학력	-.19**	-.12	-.59**	1.00																				
5. 월평균 가계소득	.15*	-.17*	-.20**	.09	1.00																			
6. 결혼지속연수	.89**	.93**	-.10	-.22**	.19**	1.00																		
7. 자녀수	.54**	.57**	.12	.24**	.18**	.64**	1.00																	
8. 가족수	.40**	.42**	.02	-.03	.19**	.45**	.80**	1.00																
9. 주택 소유여부	.13**	.10	-.12	-.18*	.05	.12	.15	.15*	1.00															
10. 남편 직업(판매·사무직 및 사영직)	.04*	.03	-.19**	.14*	-.07	.01	-.03	-.03	-.15*	1.00														
11. 남편 직업(전문·관리직)	-.18*	-.14*	.05	.16*	-.11	.16*	.20**	-.16*	-.29**	-.16*	1.00													
12. 소득 격감(남편)	-.06	-.03	.22**	.08*	.28**	-.02	-.06	-.04	-.03	-.11	.001	1.00												
13. 경제수준 향상(남편)	-.11	-.12	.07	.02	.13	-.11	.12	.08	-.05	-.03	.04	.47**	1.00											
14. 상대적 비교감(남편)	.06	-.08	.28**	.17*	.34**	-.08	-.04	.02	.07	-.17*	-.04	.58**	.47**	1.00										
15. 자원 지라도(남편)	-.01	-.003	.23**	.08	.24**	.01	.02	.06	-.02	-.20**	.03	.45**	.19**	.34**	1.00									
16. 자원기여 평가도(남편)	-.02	-.02	.06	.08	.09	.01	-.07	-.04	.01	-.08	-.05	.14**	.04	.07	.35**	1.00								
17. 소득 적정감(부인)	-.14	-.13	.19**	.15*	.40**	-.13	-.09	-.07	.07	-.07	.01	.54**	.30**	.45**	.25**	.17*	1.00							
18. 경제수준 향상(부인)	-.19**	-.18*	.14*	.09	.27**	-.15*	-.09	-.03	.0004	-.09	.09	.30**	.45**	.30**	.12	.11	.52**	1.00						
19. 상대적 비교감(부인)	-.04	-.02	.25**	.13	.40**	.01	.01	.02	.09	-.03	-.05	.33**	.31**	.49**	.19**	.08	.53**	.52**	1.00					
20. 자원 지라도(부인)	-.09	-.07	.14*	.11	.11*	-.05	-.13	-.03	-.01	-.09	.03	.25**	.08	.17*	.19**	.36**	.29**	.21**	.21**	1.00				
21. 자원기여 평가도(부인)	-.12	-.03	.23**	.25**	.24**	-.05	-.04	.02	-.12	-.16*	.14	.39**	.29**	.37**	.48**	.20**	.42**	.39**	.37**	.29**	1.00			
22. 생활 만족도(남편)	-.08	-.03	.22**	.14*	.24**	-.08	-.03	.02	-.10	-.06	.01	.46**	.32**	.40**	.47**	.30**	.36*	.25**	.25**	.25**	.41**	1.00		
23. 생활 만족도(부인)	-.10	-.06	.15*	.20**	.20**	-.06	-.11	-.05	-.06	-.05	.05	.31**	.28**	.34**	.28**	.19**	.47**	.39**	.46**	.34**	.58**	.55**	1.00	